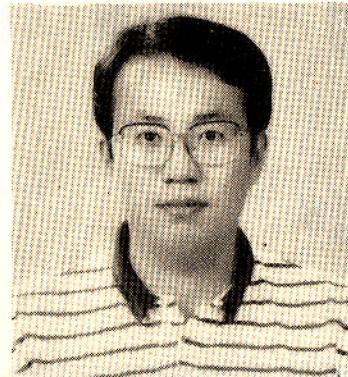


##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 중간정리: 三貧의 哀와 七去의 經

김영수 (경제학박사)



지금까지 여러 주일에 걸쳐서 필자가 쓴 글은 돈버는 방법에 관한 總論이다. 즉, 2장은 구체적인 돈버는 테크닉을 논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7가지 가장 혼한 케이스를 광범위하게 그 원칙만을 논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이 카나다가 2장에서 말한 7가지 부자되는 방법이 골고루 갖추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이 한번 해 볼만한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즉, “이 카나다에서는 ①부모를 잘타고 나지 않아도, ②독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③리스크테이킹을 잘하고, ④현금동원을 착실하게 하고, ⑤열심히 근검절약하면, ⑥운도 따를 것이고, 따라서 ⑦나쁜 짓 하지 않아도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것이다”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3장, 즉 각론으로 넘어갈려고 한다.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2장에서의 필자의 논의를 약간은 回顧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학교로 치면 中間考査를 쳐야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간 글을 다시 읽어보니, 역시 ‘亂文’이었다는 생각

사람인가를 무척이나 궁금하게 생각하셨고,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은 생전에 처음 들어 보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이야기들의 출처가 어데인가를 무척이나 알고 싶어하셨다. 그래서, 電話도 많이 걸어주셨는데, 이 기회에 아예 필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도 약간은 소개를 하여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2장에서 한 이야기들의 出處도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밖에 들지 않는다. 필자는 학교 다닐 때는 시험공부한다고 글 연습을 하여보지 못하였고, 학교를 졸업한뒤로는 영어로만 글을 써보았지 우리말로는 글을 써보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부터 사고 방식 자체가 영성하여서 그런지, 맞춤법이고 표준말이고를 처음부터 완전히 무시한 거친 文體여서 지난 몇주간의 기사를 엎그제 다시 읽어보니 아차! 싶은 생각만든다. 그렇다고 내용이나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그것도 걱정만 심하게 된다. 이렇 줄 알았으면 가령이나 필명으로 글을 쓸 걸... 하는 때늦은 후회도 한다. 하여간, 수주간에 걸친 波狀적인 ‘亂文’ 攻勢의 결과 많은 분들이 도대체 필자는 무엇을 하는

우선, 필자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한국에는 없는 직종이어서 한국분들에게는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사업을 진행시킬 적에, 그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가장 적합한 금융전략을 짜주고 그 금융전략을 집행하여주는 일을 말한다. 주식을 발행하여서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렇다면 언제 어떠한 형태의 주식을 발행할 것인지, 발행하면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팔것인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면, 꿀 것인지, 돈을 꾸다면, 미국에가서 꾸어 올것인지, 아니면 한인 신용협동조합에 가서 돈을 끼어 오는 것이 좋은지,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꾸는 것도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는 것이 돈을 동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일을 기업들의 금융수요가 있을 때마다 연구하여 그 기업에게 알으켜 드리기도 하고, 그 기업이 원하시면 그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직접 동원하여 드리기도 한다. 즉, 기업의 전략적 금융동원을 일괄 책임져주는 일을 말한다. 그리고, 이 일을 하다보면, 사업타당성, 즉, Feasibility Study도 절로 하여준다. 그랬더라면 오죽이나 좋겠느냐마는, 필자가 모든 기업을 언제나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Junior Oil and Gas와 같은 조그마한 자원개발회사와 중간 사이즈의 호텔들, 그리고 조그만 하이텍회사가 필자의 전문분야이다. 특히, 그 회사들이 약간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가 필자의 전문분야이다. 즉, 조그만 자원회사, 중간사이즈의 호텔, 하이텍회사가 큰 돈이 필요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지면 필자를 조용히 찾아와서 정중히 상담을 하는 편이 좋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 분야에서는 세계의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원래 아무도 생각도 못하던 것이 하늘에서 뚝떨어지듯이 필자가 완전 독창적으로 발명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 필자가 엘아티에서 박사학위논문을 할 때, 후진국의 외채위기 해결테크닉과 금융자율화테크닉이 논문 토픽이었는데, 그 기술을 응용하여 필자가 조금 살을 뚫이고 하여 겨우겨우 개발한 몇몇 금융기법이 있는데, 바로 그 금융기법

들이 필자의 장사밀천이다.

덤벙대는 필자가 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등정심半 호기심半하여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신 여러 선배님들 때문에, 여기 저기 선전도 어느 정도되어서 조만간 큰돈을 벌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필자가 부자가 될 경우 이를 위에서 말한 7가지 부자되는 경로에 비추어 냉정하게 분석하여 보면, 우선, ①필자의 덜깨인 머리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게하여주신 하나님 덕, 즉, 운이 제일 큰 요인일 것이고, ②그 다음은 비싼 학교에 가서 돈많이 들이고 공부하도록 지원하여주신 부모님과 장인님이 그 두번째 일 것이고, ③결과적으로 필자가 필자의 분야에서 形成하고 있는 약간의 獨占이 세번째가 될 것이고, ④당장 어데가서 답답한 궁상을 떨지 말고 장사를 마음놓고 한번 하여보라고 큰 돈을 대어주신 우리 동서양반의 현금력이 네 번째 요인이 될 것이고, ⑤편 하디 편한 편한 학교라는 직장을 때려치운 필자의 리스크테이킹이 다섯번째 요인이 될 것이고, ⑥돈주실 고객에게 굽실거리기를 잘하는 필자의 ‘궂은 일’ 할 용의가 여섯번째가 될 것이고, ⑦아껴쓰는 필자의 아내의 덕, 즉, 근검절약이 일곱 째 요인이 될 것이다. (정말, 자다가도 생각해보면, 부자되는 일곱가지 요인을 이렇게 필자처럼 한사람이 다갖추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큰부자가 꼭 될것이라고 크게 확신하는 바이다. 할렐루야!) <계속> -필자 김영수 / Cranewood Corp 대표